

성폭력 피해에 대한 조직배반과 우울의 관계: 외상 후 인지의 매개효과

박 윤 경

안 현 의[†]

이화여자대학교

자신이 신뢰하는 대상에게 성폭력 피해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받게 되는 부정적인 반응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배반외상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를 형성하고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가족, 친구, 지인 등의 비공식적 주체가 보이는 사회적 반응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인은 생존, 안전, 생계, 교육 등의 다양한 이유로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며, 조직이 개인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인 조직배반 (institutional betrayal) 역시 조직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배반되는 외상 경험이 되어 외상 후 인지 및 우울과 연관될 수 있다. 그러나 조직배반이 우울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기제를 밝히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증상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대표적인 접근 중 하나인 인지행동이론에 기반하여, 조직배반이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외상 후 인지가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조직배반을 경험한 여성 4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조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조직배반은 우울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와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폭력 피해에 대해 조직배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과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지를 확인하고 다루는 것이 이들의 우울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조직배반, 우울, 외상 후 인지, 성폭력 피해, 여성

[†] 교신저자: 안현의,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02-3277-2643, E-mail: ahn12@ewha.ac.kr

성폭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는 성적 행위로 정의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관음증이나 성희롱과 같은 비접촉 행위, 성추행, 강간 미수, 강간 등을 포함한다.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충격적인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이는 PTSD, 우울, 불안,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자살 사고 및 시도 등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증상과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정규, 김중술, 2000; Campbell, Dworkin, Cabral, 2009; Zinzow, Resnick, McCauley, Amstadter, Ruggiero, & Kilpatrick, 2012). 그러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 모두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들의 심리적 예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외상경험의 개방에 대한 주변의 반응이 주목받고 있다(Campbell 등, 2009; Mason, Ullman, Long, Long, & Starzynski, 2009; Ullman, 2010a, Ullman & Filipas, 2001). Ullman(2000)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변의 반응을 사회적 반응(social reactions)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에는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 도움이 있고,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으로는 낙인찍기, 방해하기, 통제하기, 피해자 비난하기, 자기중심적 반응이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사회적인 낙인 효과로 인해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Banyard, Moynihan, Walsh, Cohn, & Ward, 2010; Kennedy & Prock, 2018). 믿고 의지하는 대상에게 성폭력 피해 경험을 개방했을 때 받게 되는 부정적인 반응은 그 자체가 대인간 외상 경험이 될 수 있다. 대인간 외상의 대표적인 후유증은 우울이다(Brown, 2010; Brown & Harris, 1978; Bryant, 2010; Hammen, 2005). 성폭력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의

료 및 사법 체계에 피해 사실을 보고한 이후에 대부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우울 증상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 Wasco, Ahrens, Sefl, & Barnes, 2001). 다양한 인종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폭력 피해 경험의 개방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우울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Hakimi, Bryant-Davis, Ullman, & Gobin, 2018). 한국판 사회적 반응 척도(K-SRQ)를 타당화한 심기선과 안현의(2014)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와 통제하기가 외상 증상 및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을 확인했다. 즉, 성폭력 피해에 대해 주변에서 받게 되는 부정적인 반응은 그 자체가 하나의 외상경험이 되어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과 같은 외상경험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울로 이어지는가? 현재까지 외상 후 증상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접근은 인지행동이론이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7). 인지행동이론의 핵심은 외상 사건으로 인해 개인이 자신과 세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 변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가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Foa, Ehlers, Clark, Tolin, & Orsillo, 1999). 이렇게 외상으로 인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사고나 신념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을 외상 후 인지(posttraumatic cognitions)라고 일컫는다.

성폭력 생존자들은 자신의 피해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개방할 때 대개 지지와 원조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기대한다(Ahrens, Campbell, Ternier-Thames, Wasco, & Sefl, 2007). 그러나 그 대신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받게 될 경우,

‘타인은 믿을 만하며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존의 믿음이 깨지게 되면서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가 형성될 수 있다(Dworkin, Brill, & Ullman, 2019).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간을 가지도록 만들 수 있다. 피해자 비난하거나 낙인찍기와 같은 부정적 반응은 피해자의 자기비난을 증가시키고 우울 및 사회적 철수와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razier, Mortensen, & Steward, 2005; Gottman & Driver, 2005; Littleton & Breitkopf, 2006; Ullman, 2000). 통제하기, 방해하기, 자기중심적 반응은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촉진함으로써 외상 기억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피해자의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Littleton & Breitkopf, 2006; Ullman, Townsend, Filipas, & Starzynski, 2007).

외상경험의 개방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외상 후 인지를 거쳐 우울로 이어지는 과정은 경험적으로도 입증되었다. 강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Littleton(2010)의 연구에서는 강간 피해 경험의 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외상 후 인지와 우울을 예측했다. 김나정과 안현의(2020)의 연구에서는 외상경험에 대한 사회적 반응 중 정서적 지지와 통제하기가 외상 후 인지를 완전매개로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성폭력 피해에 대해 주변이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은 외상경험이 되어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를 형성하고 우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사회적 반응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적 반응을 제공하는 주체는 가족이나 친구 등의 가까운 타인과 교수, 선생님, 상사, 동료 등의 지인을 포함하

는 비공식적 제공원(informal provider) 이외에도 학교, 회사, 군대 등 다양한 기관이나 조직을 포함하는 공식적 제공원(formal provider)이 있다. 개인은 생존, 안전, 생계, 교육 등의 다양한 이유로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다. 그러나 조직이 개인의 피해 경험을 예방하려고 노력하지 않거나 피해 경험에 대해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경우, 개인은 이를 조직에 대한 신뢰가 배반되는 외상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다. Platt, Barton과 Freyd(2009)는 공식적 주체인 조직이 개인의 피해 경험에 대해 보이는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조직배반(institutional betrayal)이라고 정의했다.

조직배반은 배반외상이론(betrayal trauma theory; Freyd, 1994)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이 이론에서는 믿고 의지하는 대상과의 신뢰 관계가 배반되는 애착 외상을 경험하는 것이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생존을 위해 양육자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아동이 양육자로부터 성적 학대와 같이 신뢰가 깨지는 경험을 하면 애착 안정성과 자기감에 손상을 입게 된다(Bowlby, 1969).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도 불륜,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등으로 둘 사이의 신뢰가 배반될 때 피해자는 깊은 수치심과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Platt, Barton, & Freyd, 2009). 마찬가지로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조직이 성폭력과 같은 피해 경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역시 조직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훼손되는 배반외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Smith & Freyd, 2014).

조직배반은 조직이 취하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크게 omission과 commission으로 나뉜다. omission은 조직이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조직 내 피해 경험을 예방하는 정책을 만들지 않거나 피해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commission은 조직이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조직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 특히 DARVO(Deny, Attack, Reverse Victim and Offender) 즉 개인의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는 것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는 앞서 Ullman(2000)이 제시한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인 낙인찍기, 방해하기, 피해자 비난하기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과 유사한 개념에 해당하는 조직배반 역시 우울과의 관련성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참전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군 성적 외상(military sexual trauma; MST)에 대한 조직배반이 PTSD 증상, 우울 증상, 증가된 자살 시도율과 유의미한 상관관을 보였다(Monteith, Bahraini, Matarazzo, Soberay, & Smith, 2016).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소수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폭력 유형을 통제한 후에도 조직배반을 경험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우울, 낮은 집단 자존감 등 부정적인 심리적 예후를 더 많이 보였다(Smith, Cunningham, & Freyd,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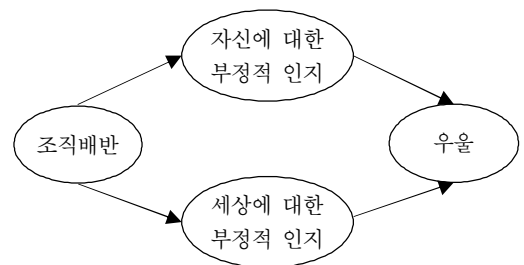
배반외상이론에서는 가까운 대상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배반외상이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Janoff-Bulman, 1989).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조직으로부터 배반당하는 외상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과 타인이 기본적으로 선하고 정의롭다는 신념이 무너질 수 있다. 또 조직으로부터 낙인이 찍히거나 비난을 받을 경우

피해자는 오히려 자신을 탓하게 되고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신념이 흔들릴 수 있다. 즉, 조직배반도 부정적 반응의 하나로서 하나의 외상 경험으로 작용해 세상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를 형성하고 우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조직배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우울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리하면, 조직이 개인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보이는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인 조직배반은 조직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배반외상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외상경험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를 형성하고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조직배반이 우울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심리적 기제를 밝힌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반외상이론과 인지행동이론을 근거로 조직배반과 우울의 관계를 외상 후 인지, 즉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가 매개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는 조직배반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는 조직배반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연구대상으로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여성을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를 통해 모집하였다. 안내문을 통해 본 연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529명에 한해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연령, 최종 학력, 수입, 거주 지역 등 네 개의 인구통계학적 질문과 함께 성폭력 피해 경험 체크리스트, IBQ.2, PTCI, CES-D 등 다수의 설문지에 응답했다. 이들 중 조직의 범위를 벗어난 대인관계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67명을 제외한 462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연령대는 30~39세가 118명(25.5%), 49~49세가 116명(25.1%), 20~29세가 114명(24.7%), 50세 이상이 114명(24.7%)으로 연령대의 분포가 균일한 편이었다. 최종 학력은 대졸이 341명(73.8%)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가 88명(19.0%), 석사 이상이 33명(7.1%)이었다. 수입은 200~299만원이 151명(32.7%)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 지역은 서울이 155명(33.5%)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역시가 124명(26.9%), 경기도가 115명(24.9%) 등이었다.

측정도구

성폭력 피해 경험

참가자들이 조직 내에서 경험한 성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기존 연구와 성폭력의 법적 정의에 기반해 8가지 유형의 성폭력 피해를 조직 안에서 경험한 적

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성폭력의 8개 유형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강간 미수, 강간 등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과 사이버 성폭력(PC, 핸드폰 등을 이용한 음란메시지 등), 몰래카메라, 스토킹, 성희롱 등 신체접촉을 수반하지 않은 성폭력이 포함되었다. 이에 더해 피해 경험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선택한 후 가해자(들)과의 관계, 피해 횟수, 피해 경험으로부터의 경과 시간 등을 응답하도록 요청했다.

조직배반

조직배반을 측정하기 위해 Smith와 Freyd(2017)가 개발한 조직배반 설문지 2판(Institutional Betrayal Questionnaire, Version 2; IBQ.2)을 번안하여 사용했다. IBQ.2는 조직배반에 대해 묻는 15개 문항의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12개 문항은 성폭력 피해 이전 또는 이후에 경험한 조직배반의 정도를 0점(전혀 아니다)에서 3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이에 더해 조직의 유형, 성폭력 피해 이전에 조직을 중요시했던 정도, 현재 해당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질문한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가 성폭력 피해경험 체크리스트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한 사건을 경험했던 조직의 유형을 선택하게 한 후, 그 사건과 관련해 해당 조직에서 경험한 조직배반에 대해 응답하도록 했다. 조직배반의 유형 중 omission과 관련된 문항의 예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역문항)’ 등이, commission에 해당하는 문항의 예로는 ‘내가 그 사건에 대해 말했을 때 나를 처벌했다’,

‘그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없던 일로 만들려고 했다)’ 등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이 개인의 피해 경험을 배반했다는 인식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3이었다. 조직 유형, 성폭력 피해 이전에 조직을 중요시했던 정도, 현재 해당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 내용은 결과 부분에 제시되어있다.

외상 후 인지

외상 후 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Foa 등(1999)이 개발한 외상 후 인지 척도(Posttraumatic Cognitions Inventory; PTCI)를 안현의(2005)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PTCI는 외상 후 인지와 관련된 33개 항목을 1점(전혀 아니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평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 자기비난의 세 가지 하위척도를 포함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자기비난 하위척도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해 (Andreu, Pena, & de La Cruz, 2017; Beck, Coffey, Palyo, Gudmundsdottir, Miller, & Colder, 2004; Daie-Gabai, Aderka, Allon-Schindel, Foa, & Gilboa-Schechtman, 2011; Gulec, Kalafat, Boysan, & Barut, 2014; Kolts, Robinson, & Tracy, 2004; Startup, Makgekgenene, & Webster, 2007; Su & Chen, 2008) 본 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 하위척도에 해당하는 21개 항목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 하위척도에 해당하는 7개 항목만을 사용하였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와 관련된 문항의 예로는 ‘나는 어딘가 잘못된 사람인 것 같다’, ‘나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등이 있고,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와 관련된

문항의 예로는 ‘이 세상은 정말 위험한 곳이다’,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등이 있다. PTCI의 신뢰도 계수는 Foa 등(1999)의 연구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가 0.97,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가 0.88이었고, 안현의(2005)의 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가 0.95,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가 0.85, 본 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가 0.97,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가 0.89로 나타났다.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전경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타당화한 한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였다. CES-D는 비임상 집단이 경험하는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20개 항목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지난 한 달 간 우울 증상을 경험한 빈도를 0점(극히 드물다)에서 3점(거의 대부분) 척도로 평정하도록 요구되었다. 우울 점수의 총합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16점 이상은 경증의 우울 증상을, 25점 이상은 중증의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alpha=0.94$ 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1.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되었다. 우선 자료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후, 연구변인 간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조직배반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외상 후 인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

정식을 이용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살펴보았다. CFI와 TLI는 일반적으로 0.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고(Bentler, 1990), RMSEA 지수는 0.05 이하는 좋은 적합도, 0.08 이하는 보통 적합도, 0.10 이상은 나쁜 적합도를 나타내며(Browne & Cudeck, 1993), SRMR는 0.08 이하일 때 괜찮은 적합도로 본다(Hu & Bentler, 1999). 연구모형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는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확인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조직배반과 관련된 내용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조직의 유형은 직장이 270명으로 가장 많았고(58.4%), 학교가 116명(25.1%), 동아리/동호회가 44명(9.5%), 인턴/수습/수련기관이 16명(3.5%), 학원이 10명(2.2%), 종교단체가 6명(1.3%) 순이었으며 군대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없었다. 성폭력 피해 이전에 조직을 중요하게 생각한 정도는 ‘약간 중요함’이 199명으로 가장 많았고(43.1%), ‘상당히 중요함’이 177명으로 비슷하게 많았으며(38.3%), ‘매우 중요함’은 47명(10.2%), ‘전혀 중요하지 않음’은 39명이었다(8.4%). 해당 조직에 현재 소속되어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참여자가 소속되

표 1. 가장 고통스러웠던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조직배반

구분		N	%
조직 유형	학교	116	25.1
	동아리/동호회	44	9.5
	직장	270	58.4
	인턴/수습/수련기관	16	3.5
	종교단체	6	1.3
	군대	0	0.0
	학원	10	2.2
	합계	462	100.0
조직의 중요도 (성폭력 피해 이전)	전혀 중요하지 않았음	39	8.4
	약간 중요했음	199	43.1
	상당히 중요했음	177	38.3
	매우 중요했음	47	10.2
현재 소속 여부	예	97	21.0
	아니오	365	79.0
합계		462	100.0

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고(365명, 79.0%), 참여자의 약 5분의 1은 현재도 소속되어 있다고 응답했다(97명, 21.0%).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수집한 자료의 일반적인 경향성과 정상성을 검토하기 위해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주요 변인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모든 변인은 왜도의 절대값이 3,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05).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이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조직배반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r=0.405$, $p<0.01$),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r=0.437$, $p<0.01$), 우울($r=0.327$, $p<0.01$)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는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r=0.640$, $p<0.01$) 및 우울($r=0.684$, $p<0.01$)과 특히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도 우울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0.577$,

$p<0.01$). 이는 조직배반을 많이 경험할수록 외상 후 인지를 나타내고 우울을 겪을 확률이 높아지며, 외상 후 인지를 많이 나타낼수록 우울을 경험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들 간에 상관이 높을 경우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VIF를 확인한 결과 10을 넘지 않아(1.278~1.811)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O'Brien, 2007).

모형 적합도 검증

조직배반과 우울의 관계를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와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가 매개할 것임을 가정한 연구모형에 대해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과 같이 $\chi^2(114, N=462)=405.170$, $p<0.001$, CFI=0.951, TLI=0.918, RMSEA=0.074, SRMR=0.0760으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462)

	1	2	3	4
	조직배반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	우울
1	1			
2	0.405**	1		
3	0.437**	0.640**	1	
4	0.327**	0.684**	0.577**	1
M	14.368	56.591	29.543	20.097
SD	6.368	28.011	9.495	11.955
왜도	0.577	0.563	-0.213	0.668
첨도	0.022	-0.507	-0.436	0.036

** $p<0.01$

표 3. 연구 모형의 적합도 (N=462)

χ^2	df	p	CFI	TLI	RMSEA	90% CI	SRMR
405.17	114	0.000	0.951	0.918	0.074	[0.067, 0.082]	0.076

다(Bentler, 1990; 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모형의 각 경로 추정치를 확인한 결과, 조직배반에서 우울로 가는 직접경로를 제외하고, 조직배반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로 가는 직접경로($\beta=0.491$, $p<0.001$), 조직배반에서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로 가는 직접경로($\beta=0.549$, $p<0.001$),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에서 우울로 가는 직접경로($\beta=0.566$, $p<0.001$),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에서 우울로 가는 직접경로($\beta=0.291$, $p<0.001$)가 유의했다(표 4).

매개효과 검증

조직배반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와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원자료(N=462)에서 무선표집으로 10,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한지를 확인했다. 부트스트랩 결과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Shrout & Bolger, 2002). 실시 결과 조직배반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를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beta=0.301$, $p<0.001$)와 조직배반이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를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beta=0.311$, $p<0.001$)가 유의하였다. 즉,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와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는 조직배반과 우울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매개 경로의

표 4. 연구 모형의 모수 추정치

경로	B	S.E.	β
조직배반 →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	1.330	0.146	0.491***
조직배반 →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	1.515	0.154	0.549***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 → 우울	0.237	0.017	0.566***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 → 우울	0.120	0.017	0.291***

*** $p<0.001$

표 5. 연구 모형의 간접효과

경로	β	S.E.	95% CI
조직배반 →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 → 우울	0.301**	0.037	[0.231, 0.375]
조직배반 →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 → 우울	0.311**	0.051	[0.274, 0.474]

** $p<0.01$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조직배반을 경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직배반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관계에서 외상 후 인지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경험은 하나의 외상 사건으로 작용해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배반외상이론과 함께 외상사건으로 인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서 심리적 부적응을 겪게 된다는 인지행동이론을 근거로, 조직배반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지와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가 매개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배반은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성폭력 피해에 대해 조직배반을 더 많이 겪을수록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조직배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리적 부적응을 더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Monteith, Bahraini, Matarazzo, Soberay, & Smith, 2016; Smith & Freyd, 2013; Smith & Freyd, 2016; Wright, Smith, & Freyd, 2017).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과의 신뢰 관계가 깨질 때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는 배반외상이론(Freyd, 1994)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조직이 개인의 피해 경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 및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는 조직배반 및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에 대해 조직배반을 더 많이 겪을수록 자신 및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강해지며, 이러한 인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도와주고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오히려 피해 경험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면, 세상이 기본적으로 선하고 공정하며 믿을 만한 곳이라는 신뢰가 깨질 수 있다. 또한 중요한 대상으로부터 지지가 아닌 부정적인 반응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분노하는 대신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가 야기되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비난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과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가정들이 무너지게 되면, 개인은 취약함과 무기력감을 경험하면서 우울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Janoff-Bulman, 1989).

셋째,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 및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가 조직배반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특히 조직배반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 및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외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함에 따라 심리적 부적응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인지행동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다(Beck, 1967; Ehlers & Clark, 2000; Epstein, 1991; Foa, Steketee, & Rothbaum, 1989; Janoff-Bulman, 1989).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반응이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 수준에서 살펴 보았다. 사회적 반응을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반응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반응의 비공식적 주체와 공식적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Orchowski & Gidycz, 2015).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피해 경험에 대한 조직의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이 피해자의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직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적절한 태도 및 행동을 취하는 것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조직배반이 우울로 이어지는 심리적 기제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직배반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우울 등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직배반이 외상 후 인지를 거쳐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조직배반을 경험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심리치료 장면에서는 피해자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왜곡된 사고는 현실에 기반한 적응적인 시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국한되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성폭력 피해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은 사실이나, 남성은 사회적인 성 고정관념으로 인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기가 더 어렵고 이야기할 경우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받게 된다(Davies, 2002). 이에 더해 조직배반은 성폭력뿐만 아니라 소수자 차별,

의료사고, 과잉진압 등 여러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하여 조직배반과 외상 후 인지, 우울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변안하여 사용한 IBQ는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추후 연구를 통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IBQ를 타당화한다면, 국내에서도 조직배반을 측정하는 적절한 도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장면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변인들의 측정 시기에 차이가 있어 변인들 간 인과관계가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즉, 성폭력 피해 경험과 이에 대한 조직배반은 회고적으로 응답하도록 한 반면, 외상 후 인지와 우울은 현재의 인지와 정서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최근에 성폭력 피해 및 조직배반을 경험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면 변인들 간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에 기반해 조직배반, 외상 후 인지, 우울의 관계를 가정하고 모형을 검증하였으나,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주요 변인들과 영향을 주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PTSD는 우울과 함께 외상 이후에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부적응 증상이며, 외상 후 인지와도 관련성이 높은 변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요인들을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직배반이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기제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보다 섬세한 치료적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나정, 안현의 (2020). 외상경험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우울의 관계: 외상 후 인지의 매개효과와 성차. *인지행동치료*, 20, 91-113.
- 김정규, 김정술 (2000). 아동기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 성인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4), 747-769.
- 심기선, 안현의 (2014). 한국판 외상경험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 척도 (K-SRQ)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271-296.
- 안현의 (2005). 청소년의 외상 경험과 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3(1), 31-41.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찬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Ahrens, C. E., Campbell, R., Ternier-Thames, N. K., Wasco, S. M., & Sefl, T. (2007). Deciding whom to tell: Expectations and outcomes of rape survivors' first disclosur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1), 38-49.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7). PTSD Treatments. <https://www.apa.org/ptsd-guideline/treatments>
- Andreu, J. M., Peña, M. E., & de La Cruz, M. Á. (2017).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Posttraumatic Cognitions Inventory (PTCI) in female survivors of sexual assault. *Women & health*, 57(4), 463-477.
- Banyard, V. L., Moynihan, M. M., Walsh, W. A., Cohn, E. S. & Ward, S. (2010). Friends of survivors: The community impact of unwanted sexual experienc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2), 242-256.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Hoeber Medical Division, Harper & Row.
- Beck, J. G., Coffey, S. F., Palyo, S. A., Gudmundsdottir, B., Miller, L. M., & Colder, C. R. (2004).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osttraumatic Cognitions Inventory (PTCI): a replication with motor vehicle accident survivors. *Psychological assessment*, 16(3), 289.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 3 (Vol. 1). *Random House*. Furman, W., & Bubrmester, D.(2009). *Methods and measures: The 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 Behavioral systems ver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3, 470-478.
- Brown, G. W. (2010). Psychosocial origins of 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s.
- Brown, G. W., & Harris, T. (1978). Social origins of depression: a reply. *Psychological medicine*, 8(4), 577-588.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A, Long JS,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Beverly Hills, CA: Sage*, 136-162.
- Bryant, R. (2010). Treating the full range of posttraumatic reactions. *Clinician's guide to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205-234.
- Campbell, R., Dworkin, E., & Cabral, G. (2009). An ecological model of the impact of sexual

- assault on women's mental health. *Trauma, Violence, & Abuse*, 10(3), 225-246.
- Campbell, R., Wasco, S. M., Ahrens, C. E., Sefl, T., & Barnes, H. E. (2001). Preventing the "Second rape" rape survivors' experiences with community service provi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12), 1239-1259.
- Daie-Gabai, A., Aderka, I. M., Allon-Schindel, I., Foa, E. B., & Gilboa-Schechtman, E. (2011). Posttraumatic Cognitions Inventory (PTCI): Psychometric properties and gender differences in an Israeli sampl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5(2), 266-271.
- Davies, M. (2002). Male sexual assault victims: A selective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mplications for support servic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7(3), 203-214.
- Dworkin, E. R., Brill, C. D., & Ullman, S. E. (2019). Social reactions to disclosure of interpersonal violence and psychopatholog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72, 101750.
- Ehlers, A., & Clark, D. M. (2000). A cognitive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4), 319-345.
- Epstein, S. (1991). Impulse control and self-destructive behavior. *Self-regulatory behavior and risk-taking: Causes and consequences*, 273-284.
- Foa, E. B., Ehlers, A., Clark, D. M., Tolin, D. F., & Orsillo, S. M. (1999). The posttraumatic cognitions inventory (PTCI):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11(3), 303.
- Foa, E. B., Steketee, G., & Rothbaum, B. O. (1989). Behavioral/cognitive conceptualization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r therapy*, 20(2), 155-176.
- Frazier, P. A., Mortensen, H., & Steward, J. (2005). Coping Strategies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 Among Perceived Control and Distress in Sexual Assault Surviv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267.
- Freyd, J. J. (1994). Betrayal trauma: Traumatic amnesia as an adaptive response to childhood abuse. *Ethics & Behavior*, 4(4), 307-329.
- Gottman, J. M., & Driver, J. L. (2005). Dysfunctional marital conflict and everyday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3(3-4), 63-77.
- Güleç, M., Kalafat, T., Boysan, M., & BARUT, Y. (2014).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Turkish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Cognitions Inventory (PTCI) in a Non-Clinical Sample. *Medical Bulletin of Haseki/Haseki Tıp Bulteni*, 52(2).
- Hakimi, D., Bryant-Davis, T., Ullman, S. E., & Gobin, R. L. (2018).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social reactions to sexual assault disclosure and mental health outcomes of Black and White female survivor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0(3), 270.
- Hammen, C. (2005). Stress and depression. *Annu. Rev. Clin. Psychol.*, 1, 293-319.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anoff-Bulman, R. (1989). Assumptive worlds and

- the stress of traumatic events: Applications of the schema construct. *Social cognition*, 7(2), 113-136.
- Kennedy, A. C., & Prock, K. A. (2018). "I still feel like I am not normal": A review of the role of stigma and stigmatization among female survivors of child sexual abuse, sexual assault,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Trauma, Violence, & Abuse*, 19(5), 512-527.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 Kolts, R. L., Robinson, A. M., & Tracy, J. J. (2004). The relationship of sociotropy and autonomy to posttraumatic cognitions and PTSD symptomatology in trauma survivor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0(1), 53-63.
- Littleton, H. L. (2010).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and negative disclosure reactions on sexual assault victims: A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Trauma & Dissociation*, 11(2), 210-227.
- Littleton, H., & Breitkopf, C. R. (2006). Coping with the experience of rap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1), 106-116.
- Mason, G. E., Ullman, S., Long, S. E., Long, L., & Starzynski, L. (2009). Social support and risk of sexual assault revictimizat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7(1), 58-72.
- Monteith, L. L., Bahraini, N. H., Matarazzo, B. B., Soberay, K. A., & Smith, C. P. (2016). Perceptions of institutional betrayal predict suicidal self directed violence among veterans exposed to military sexual trauma.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2(7), 743-755.
- O'Brien, R. M. (2007). A caution regarding rules of thumb for variance inflation factors. *Quality & quantity*, 41(5), 673-690.
- Orchowski, L. M., & Gidycz, C. A. (2015). Psychological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positive and negative responses to disclosure of sexual assault among college women: A prospective study. *Violence Against Women*, 21(7), 803-823.
- Platt, M., Barton, J., & Freyd, J. J. (2009). A betrayal trauma perspective on domestic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in families and relationships*, 1, 185-207.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 Smith, C. P., & Freyd, J. J. (2013). Dangerous safe havens: Institutional betrayal exacerbates sexual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6(1), 119-124.
- Smith, C. P., & Freyd, J. J. (2014). Institutional betrayal. *American Psychologist*, 69(6), 575.
- Smith, C. P., Cunningham, S. A., & Freyd, J. J. (2016). Sexual violence, institutional betrayal, and psychological outcomes for LGB college students. *Translational Issues in Psychological Science*, 2(4), 351.
- Smith, C. P., & Freyd, J. J. (2017). Insult, then injury: Interpersonal and institutional betrayal linked to health and dissociation. *Journal of*

-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6(10), 1117-1131.
- Startup, M., Makgekgenene, L., & Webster, R. (2007). The role of self-blame for trauma as assessed by the Posttraumatic Cognitions Inventory (PTCI): A self-protective cognit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2), 395-403.
- Su, Y. J., & Chen, S. H. (2008). The posttraumatic cognitions inventory-Chinese revised: Validation and refinement with a traumatized college sample in Taiwa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7), 1110-1119.
- Ullman, S. E. (2000).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Reactions Questionnaire: A measure of reactions to sexual assault victim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3), 257-271.
- Ullman, S. E. (2010). *Talking about sexual assault: Society's response to survivor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Ullman, S. E., Townsend, S. M., Filipas, H. H., & Starzynski, L. L. (2007). Structural models of the relations of assault severity, social support, avoidance coping, self-blame, and PTSD among sexual assault survivo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1), 23-37.
- Wright, N. M., Smith, C. P., & Freyd, J. J. (2017). Experience of a lifetime: Study abroad, trauma, and institutional betrayal.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6(1), 50-68.
- Zinzow, H. M., Resnick, H. S., McCauley, J. L., Amstadter, A. B., Ruggiero, K. J. & Kilpatrick, D. G. (2012). Prevalence and risk of psychiatric disorders as a function of variant rape histories: Results from a national survey of women.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7(6), 893-902.

논문 투고일 : 2020. 10. 20

1 차 심사일 : 2020. 10. 26

게재 확정일 : 2020. 12. 21

Institutional Betrayal to Sexual Victimization and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 of Posttraumatic Cognitions

Youn Kyung Park

Hyunnie Ahn

Ewha Womans University

Many survivors of sexual violence disclose their experience to others. When they receive negative social reactions, this can be a traumatic event for the survivor where their trust towards others is violated and can cause posttraumatic cognitions and depression. Likewise, institutional betrayal, or negative reactions from trusted institutions regarding the disclosure of sexual victimization can be a traumatic event for the survivor and is associated with depression as well. However, studies investigating the mechanism underl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 betrayal and depression is yet limited. Therefore, based on cognitive behavioral theory (CBT), which is known as the most effective approach to date for understanding and treating posttraumatic symptoms, this study examined if posttraumatic cognition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 betrayal and depression.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462 women who had experienced institutional betrayal to their sexual victimization. Results showed that institutional betrayal had an effect on depression only through negative cognitions about the self and world. This suggests the importance of identifying and treating trauma-related cognitions in order to prevent or cure depression of those who had experienced institutional betrayal to their sexual victimization.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institutional betrayal, depression, posttraumatic cognitions, sexual victimization, women